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끊이지 않는 성희롱 파문

최근 성희롱 파문으로 불교계가 '발각' 뒤집혔다. 지난 2월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 성희롱 사건에 이어 불교계 모 언론사 간부가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건이 겹치듯 뒤늦게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범죄 수준의 성관련 행위들이 비밀비재 해 왔다는 것이다.

한 교구본사의 교역직스님이 여성 종무원의 신체를 만져 소임을 그만두거나 서울 비사찰의 스님이 모 청소년수련관 관장에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을 잡고 목을 더듬고 껴안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비종단의 총무원장은 비구니 스님을 성폭행 한 후 피해 스님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무어성인권상담소, 사단법인 보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6개 체로 구성된 불교계성희롱사건 대책위가 최근 '불교계의 상습적인 성관련 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에 나설 만하다.

성관련 사건은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그 조직사회의 구조적 해결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법집요송경>

에는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결박하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수행자와 상담전문가, 불교 언론사 임원들이 이렇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거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는 것은 참다운 참회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성관련 문제들이 터지면 '조용히 묻어둬라'며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기 급급해 왔다. 대외적으로 정정한 불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덮어둔다고 해질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이런 일이 있었을 까? 문제가 낫을 땀 '발각' 뒤집어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은폐하려는 자세보다는 앞으로 어떤 지혜로운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뒷사람들의 머리를 위해 그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쉬쉬하고 덮어두는 관행이 더욱 악질적인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양산한 원인이 아닐까. 또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준비위 결성

사찰 및 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들의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탄생된다. 한국불교중앙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와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3월 11일 종단협산하 기구로 (가칭)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를 발족하기 위해 공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전국 200여 합창단의 전국 조직 발족을 위해 종단협 회장이 당면적 총재를 맡는 등 조직구

성안을 마련해 다음달 합창단장 총회를 거쳐 창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계기로 사찰에서의 합창단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차원의 합창단 역량을 높여 문화포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창립되는 연합회는 향후 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악보와 음반 제작, 찬불가 개발, 불교음악인 연수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하자' vs '안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교단자정센터 등 토론회 열고 의견수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출·재가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3월 12일 토론회를 열고 종단 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선 11일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도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공영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의 폭과 방법에 차이는 있어도 현행 총무원장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토

론회에서 종회회장 보선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선거문화가 시대 상황에 맞는 의식·제도 변화를 따르지 못해 청정승가의 위상마저 위협받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맥락에 같이 한다.

특히 주경 스님(종회의원)이 "설문조사로 힘을 얻으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에 반해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모임인 '조계종 전국본사주지 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지스님들은 12일 경주 호텔현대에서 "종회에 상정된 총무원장선거법이 2중 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제180차 임시 중앙총회에는 투명·공명 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취지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교구별로 추천하던 선거인단을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논의하던 총무원과위원회 회의에서도 보인 스님(종회의원)은 "금권선거를 만연시킬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3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을 비판했다. 논평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중앙총회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추

진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자신의 겨자씨만한 기록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사부대중을 우롱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조계종 스님들이 10여 년간 정채됐던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개악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선거공영제 등을 주장하며 직선제를 요구하는 쪽도, 추대제 등을 주장하거나 그대로 두자는 쪽도 서로 불만족스럽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한번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총무원장선거법의 바뀐 내용보다 개정될 것인가에 다수의 사부대중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동섭 기자 cestana@buddhapia.com



이충렬 감독 자원 스님 예방 '워너소리' 이충렬 감독이 3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원 스님을 예방했다. 이충렬 감독은 불자로 조계종 총무원에 제작비 지원을 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 감독은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을 떠올리며, 욕심없는 소를 통해 '보시'를 그리고 싶었다. 앞으로 불교사상을 더 영화·다큐를 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원 스님은 직접 단주를 길어주며 "젊은이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다음번 나에게 연락하면 꼭 지원해주마"라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 등 상정

조계종 법제위 17차 회의

조계종 중앙총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성호)는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임시중앙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법제분과위원회 9인 중 5인이 출석해 종헌 개정안 3건과 종법 개정 및 제정안 11건 중 종헌 개정안 1건, 종법 개정 및 제정안 4건을 부의하기로 했다.

부의를 법안 중 종헌 개정안은 주경 스님 외 51인이 발의한 군종의 독립 예외 조항 삭제건이다.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에서 다뤄질 종법 개정 및 제정안은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승급기산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려

법 개정안과 △포교사결계제에 관한 법을 결계와포교사결계제에 관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 △종단의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이다.

조계종 종헌의 종단구성원에 사미·사미니를 포함시키자는 종헌 개정안과 교역직 스님의 호계위원 겸직을 금지하자는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13일 현재, 이날 상정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교구총회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교구총회법 개정안 △본사전직 특별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총회 개회전인 16일 오전 9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사상으로 평화통일 뼈대 구축 나서

민추본 통일교육 워크숍

불교계가 불교사상에 입각한 민족 통일 뼈대 만들기에 첫발을 디뎠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1차 워크숍을 보행했다.

이번 민추본 워크숍에는 민족21, 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악보와 음반 제작, 찬불가 개발, 불교음악인 연수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장청현 민추본 집행위원(민족21 편집주간, 국민대 교수)은 이날 워크숍에서 "통일 교육은 정권에 따라 변화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를 반영해야 함으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교육과 강좌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추본 박재산 기획홍보계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부터 매일 1회씩 대불청, 대불원,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타 등 불교단체들을 초빙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11월 경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미지 향상 및 설득력이 뛰어나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사찰소개,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담당/감독: 김봉환(前 KBS동양이해팀장,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주 목요일 개강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태입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장 이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태입을 보내드립니다. (1만원)

www.hypnosi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등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